

1. 봉사활동도 온라인 실시간으로 (2020.10.07.)

동대문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알면 쓸데많은 한방상식 포켓북 만들기’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하였다. 2학년 중 신청자 70명의 학생들은 각자의 집에서 Zoom 클라우드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13시부터 17시까지 4시간 동안 포켓북 만들기 참여하였다. 이번 활동은 동대문자원봉사센터, 한방진흥센터, 서울시립대 대학생자원봉사 멘토단과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오프라인 봉사활동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나마 나눔을 위해 봉사하고, 나누는 기쁨을 느끼고 있다. 그들의 마음만은 그 어떤 오프라인 봉사활동보다도 따뜻하다.



2.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 하라고, 하지 말라고!?

독감 증세와 코로나19 감염 증세가 비슷해 구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팬데믹이 동시에 오는 ‘트윈데믹’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의 걱정이 깊다. 트윈데믹이 올 경우 의료체계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올해는 특히나 더 독감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국민이 독감 예방 접종하기를 당부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무료 독감백신의 상온 노출 문제가 터져 또다시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2020-10-08

질병관리청은 상온 노출 사고로 잠정 중단되었던 독감 백신 접종 지원 사업을 10월 13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만 13세에서 18세 이하 어린이는 13일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19일, 만 62세에서 69세 이하 어르신은 26일부터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8만 도즈의 백신(1도즈는 1회 접종량)은 수거하기로 했다. 2020-10-12

3.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2020.10.1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10월 19일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라고 해서 위기 경보 역시 하향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첫날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에 가까운 97명(지역발생 68명, 해외유입 29명)이 발생했다. 이는 1단계 기준인 ‘50명 미만’의 기준을 넘어선 것이다. 9월 29일부터 2주간 일별 신규 확진자는 38명→113명→77명→63명→75명→64명→73명→75명→114명→69명→54명→72명→58명→97명 등으로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113일)과 이달 7일(114명) 이틀을 빼고는 두 자릿수를 나타냈다. 방역 당국은 이와 같은 상황을 주시하며 고위험시설 등의 방역 상황을 더욱 꼼꼼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이미 전교생의 2/3가 등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격주로 등교했던 1, 2학년 학생들이 매주 등교하는 일수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학교의 학사일정은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마스크는 여전히 필수 착용이다.**

4. 2학기 중간고사 (2020.10.19.~23.)

추석 연휴를 보내고, 다시 등교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가온 1,2학년 중간고사 기간이다. 원래대로라면 9월 24일~29일에 치렀을 중간고사가 한 달이나 연기된 이유는 역시 코로나 19이다. 3학년은 2학기 중간고사가 없다. 그동안 학사일정표는 연기, 연장, 변경의 연속이었다. 얼마나 많은 수정이 있었는지 이제 셀 수도 없을 정도이다. 그래도 학교 정기고사는 치러져야 하기에 학생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교정의 나무들이 울긋불긋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여러 나무들도 짙은 결실을 맺고, 바람도 제법 쌀쌀한 완연한 가을이다.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고 있지만, 다가오고 있는 동장군 앞에서 코로나 19도 흔적없이 사라지길 바라본다. 최선을 다해 화이팅!

5. 4차 현장 입학설명회 (2020.10.24.)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진행된 4차 현장 입학설명회 역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자녀 교육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그 어느 때 보

다 우리 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당장 내년 고등학교 입학 앞둔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이 귀한 시간을 내 학교를 찾아 주셨다. 나머지 설명회 참석 역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되면서 인근의 중학교 방문도 허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0/14 사대부중 방문 설명회를 시작으로 10/21 송인중, 10/26 광운중, 11/5 청량중, 11/18 석관중, 11/23 전일중에서도 우리학교 입학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희고등학교는 기쁘다.

6. 독감 예방접종 사망자 증가로 국민 불안감 고조, 하지만 지금이라도 독감주사 맞으세요! (2020.10.26.)

10월 25일 오후 1시 기준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자는 48명으로 집계됐다. 10월 16일 인천에서 처음으로 숨진 고교생은 예방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25일 기준 예방접종위는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 사례 26건의 접종 사이의 인과 관계를 기저질환과 부검 결과를 통해 조사한 결과 13명의 생전 기저질환을 확인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추가 검사가 진행 중이며 부검하지 않은 6명은 사인이 접종과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같은 제조번호의 백신을 맞은 사망자 8명도 접종과의 인과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예방접종위 의견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방접종과 관련해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 정부 당국자로서 송구스럽다.”며 방역 당국과 전문가 평가를 신뢰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받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히 계절 독감은 국내에서만 매년 300여 명이 사망하는 위험한 감염병으로 백신 접종은 부작용에 비해 이익이 훨씬 크다”고 말하며 “예방 접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며 코로나와 계절 독감의 동시 유행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26일부터 만 62세 무료접종이 시작된다.

매년 유아, 노인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챙겨서 해 왔지만, 성인이나 청소년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 올해는 남녀노소 누구나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모두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독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우리 학교 학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꼭 접종하길 바란다.

7. 학부모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 학부모 간담회

10월 23일(금) 2학년 학부모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과 학부모 간담회가 본교 2학년 5반 교실에서 있었다. 13시부터 15시까지 진행된 ‘미디어 리터러시 특강’을 통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생산되는 정보와 콘텐츠 중 올바른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 정보 해독 능력을 키워 주는 방법을 전달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함께 변화하고 있는 학교 교육의 현장은 어떠한지 자녀들의 학습지도는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교육은 국가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와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1학년 학부모 간담회는 2시부터 시청각실에서 진행되었다. 그동안 학교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해 궁금한 점과 바라는 점을 질의하고, 이에 학교장, 학년 부장이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와 관련한 교육청 지침으로 수차례 취소된 끝에 이루어진 학부모 간담회라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8. 3학년 수능 전 마지막 학력평가, 수능 D-37 (2020.10.27.)

수능 전 마지막 학력평가가 있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바 이러스와의 싸움 때문에 3학년이 된 것도 옛그제 같은데 벌써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학기 초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야간 자율학습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공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고3 학생들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능 전 마지막 학력평가를 통해 본인의 실력을 점검해 보고, 남은 기간 전력을 다 한다면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9. 찐찐 찐 감격의 체육대회, 경희 월드컵 & NBA (2020.10.29.~30.)

소풍, 수련회, 수학여행, 과학의 날 행사, 가을소풍 등등 학생들이 매년 기다리고 기다리는 학교 행사들이 올해는 모두 취소되었다. 교실 수업을 제외하고는 한 곳에 여럿이 모이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 당연히 경희 월드컵 & NBA 행사 역시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약식으로나마 월드컵 & NBA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얼마 만에 찾아온 행사인지. 매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즐겼던 교내 체육행사를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어렵게 치르게 되니 기쁨을 뛰어 넘어 순간순간이 감격의 포인트가 되었다. 한 장면도 빼놓을 수 없었던 감동의 현장이었다. 올해는 시국이 시국인지라 모든 반이 한꺼번에 운동장에 나오지는 못하고,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4학급씩 경기가 치러졌다. 경기 중계 방송도 하지 않았고, 시상식도 생략되어 예년에 비해 다소 조용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에 참석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여느 때 보다 소중한 체육대회였다.





< 경기 최종 결과 >

	1학년 우승반	2학년 우승반
경희 월드컵	1-3, 1-5	2-3, 2-8
경희 NBA	1-1, 1-7	2-1, 2-8
MVP	송민성	임규민
	정우진	최익호
	강현준	이호찬
	서도현	박건우

10. 잡히지 않는 확진자 수, 올해 핼러윈은 제발 각자의 집에서

114명. 10월 30일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이다. 연속 사흘째 확진자 수가 세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사우나, 헬스장 등 산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핼러윈 주말을 앞두고 이태원 거리에 방역 게이트를 설치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니 또 한 번의 재확산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번 주말은 무조건 집에 머물러야 할 때이다. 핼러윈 분장과 파티가 중요한 때가 아니다.

2020-10-30

11. 주말에도 전공심화 수업의 열기 가득한 학교 (2020.11.14.)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전공 심화 수업이 매주 토요일 진행되고 있다. 매우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관심 또한 굉장히 크다. 토요일에도 학교에 나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관심 분야의 심화, 특성화된 수업도 듣고, 직접 실습도 해 봄으로써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있다.



12.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수 313명, 8월 말 이후 첫 300명대 (2020.11.18.)

11월 13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수가 200명대를 기록하더니 결국 18일 신규 확진자수가 300명을 넘어섰다. 우리 학교 인근의 거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교사,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확산세를 봐서는 우리 학교 역시 지금 당장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수능이 보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다.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내에서는 손씻기, 손 소독을 꼼꼼하게 하고, '텍스크'나 '코스크'가 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식사 시간에는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줄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 하나쯤이야 상관없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코로나 19의 끝은 없을 것이다.

1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2020.11.23.)

안타깝게도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늘 24일 자정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사흘만의 일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이 앞선 2~3월 대구·경북, 8월 수도권 유행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결혼식장 참석인원 100명 미만 등 또다시 일상생활의 제한이 시작된다. **우리 학교도 24일부터 전학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수능이 열흘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감염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서울은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도에 찬바람이 더해져 몹시 춥다. 중부·산간, 강원 지역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날씨가 지나지 않으니, 국민들의 마음이 더욱더 쫄쫄 얼어붙는 것 같아 속상한 한 주의 시작이다.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힘내서 다시 시작하는 수 밖에 없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어떻게 달라질까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모임	500명 이상 행사 지자체 신고협의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결혼장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스포츠	관중 입장 50%	관중 입장 30%	관중 입장 10%
종교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좌석 30% 제한 모임식사 금지	좌석 20% 제한 모임식사 금지
등교	밀집도 2/3 원칙-조정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유흥 시설 5종	4㎡당 1명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집합금지
식당카페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 한 칸 띄우기 ③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150㎡ 이상)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 한 칸 띄우기 ③칸막이 설치 (50㎡ 이상)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지역별 거리두기 현황



14. 코로나 19에도 수능은 지러진다.

올해는 우리 학교도 수능 시험장
(2020.11.26.)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학교는 올해 자가격리 대상 학생들의 시험 장소로 지정되었다. 우리 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인근의 고등학교로 시험장이 배치된다. 당초 코로나 19가 잠잠해지면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들이 생각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했었는데, 현재 3차 확산이 무서운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게 되었다.

수능 당일(12/3) 본교 교사들 가운데 일부는 본교에 남아 자가격리 대상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돕게 되며, 대부분의 교사들은 인근 학교들로 시험 감독을 나가게 된다. 우리 학교는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능시험 다음날 역시 전체 방역을 위해 학교 문을 닫고, 전학년 원격수업을 시행한다. 모쪼록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했던 우리 학생들이 별 탈 없이 제 실력 발휘를 하고 오길 간절히 바란다.

♡ **고생한 우리 고삼아들**
모두 모두 파이팅! ♡



자율형 사립고 경희고등학교

